

강릉~제진 복원 넘어 유럽행 철마 달릴날 성큼

SOC 경협 급물살 관측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18일 개최됨에 따라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SOC)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이미 4·27 정상회담 때 합의한 관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데 합의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하면 SOC 경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문점 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SOC 경협의 핵심 내용은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의 연결 및 현대화

철도 연결·현대화 핵심과제 동해선~북한~유럽 가시화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북미협상 재개시 본격 논의

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을 관통,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지나는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통하는 노선으로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104km)이 단절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남측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중 연결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2조3,49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도로의 경우 평양~개성 간 경의선 도로를 고속도로로, 동해선 구성~원산 구간은 국도로 현대화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 올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짓는 '통일경제특구'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경제공동체, 경제특구에 대한 북측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남북 철도가 연결된 한반도중단철도(TKR)를 비롯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중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을 따라 이어지는 물류 교통망을 통해 형성되는 에너지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다. 공동체에는 남북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에 미국도 포함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

구역이다. 이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건설업계는 남북 경협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시정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토목·전력 등 SOC 시장부터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가 부진하고 주택시장 규제,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 경협사업이 본격화하면 건설업계의 관심도 대북사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다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리는 등 선결 과제가 있는 만큼 정부 대응을 지켜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북 정상회담... 첫 대통령, 김현미 국토 장관 소개에 긴 시간 할애

경의선·동해선 등 SOC 협력 '탄력 기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난 평양 순안국제공항. 두 정상은 밝은 얼굴로 악수와 포옹을 나누는 뒤 양측 고위인사를 번갈아가며 서로 소개했다.

김위원장이 먼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고위인사를 문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이어 문 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공식 수행원들을 알렷다.

김 위원장과 남측 공식 수행원이 차례로 간단한 인사 정도를 나누다가 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개할 때는 다소 긴 시간을 할애했다.

김 장관이 SOC(사회기반시설) 주무 부처의 수장인 만큼 남북 간 도로와 철도 연결에 있어 김 장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 철도 연결..."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앞서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경제 부처 장관 중 유일하게 참석한 김 장관을 소개하며 "우리 철도 연결..."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예상보다 오래 소개하면서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27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 연결이 큰 축을 차지했다.

동아시아공동체·통일경제특구 결과물 내놓을지도 관심집중

그러나 북한 비핵화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SOC도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SOC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과 현대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서울-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지난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운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낡고 오래된 탓에 현대화가 시급할 실정이다.

동해선의 경우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지나 러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 현재 남측 강릉~제진 104km 구간이 단절된 상태다.

국토부는 동해선 남측 구간 연결을 1순위로 염두에 두고 있다. 올해 안에 연결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총사업비 2조 3400억원을 책정했다.

도로는 평양~개성 간 경의선 도로의 고속도로화, 동해선 구성~원산 구간의 현대화 등이 급선무다.



세 번의 만남 세 번의 포옹.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3번째로 18일 오전 평양 순안 공항에 도착, 마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은 지난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포옹하는 남북 정상. 가운데는 지난 5월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헤어지며 포옹하는 남북 정상.

국토부는 경의선 고속도로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 11.8km 구간에 대해 연내 연결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총 5179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경의선 도로는 남측의 1번 국도를 통해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노선으로 부산에서 서울,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으로 빠지는 한반도 핵심 도로망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경의선 연결이 선결과제다.

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제시했던 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짓는 '통일경제특구'도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남북 철도가 연결된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비롯해 중

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몽골 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을 따라 이어지는 물류 교통망을 통해 형성되는 에너지공동체이자 경제공동체를 말한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경제 공동구역이다.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남측이 내민 남북 도로·철도 연결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통일경제특구의 제안을 북측이 받아들일 경우 이들 프로젝트는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남기자 knp@